

PSAT 언어논리 공부방법론

김우진

철학박사(Ph.D) 인식론 및 논리 전공(학위 논문 : Logical Function of intellect)

다수 대학 강의(한양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

前) 동국대학교 교수(2014년 외래 교수)

前) 합격의 법학원 PSAT 언어논리 전임

現) 프라임 법학원 PSAT 언어논리 전임

現) 메가로스쿨 LEET 추리논증 전임

1. 영역의 성격

언어논리 영역은 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추론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검정하는 부분이다. 이 영역에서는 다양한 정보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파악하는 능력, 파악된 정보들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능력,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평가하는 능력, 정보들을 재조직하거나, 새로운 정보들을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또한 여러 분야의 지식을 복합적으로 응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통합학문적인 문제를 위주로 출제하기 때문에, 다양한 독서를 통해 넓고 깊은 교양을 쌓은 사람이 유리한 문제가 출제된다.

언어논리 영역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사실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교육과정평가원의 언급대로 대학 기간 4년 동안 다양한 독서 체험과 평소의 논리 비판적 사고의 훈련이 겸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한 문제풀이 연습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적 측면과 논리 비판적 사고에 의한 지식의 활용 능력에 준비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 평가항목

평가항목	측정내용	참고사항
이해	글의 주요 부분을 파악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 다양한 지문을 사용하여 폭넓은 독서를 유도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 처세술이나 재테크 관련 글을 피하고 대신 공직자가 읽어야 할 만한 고전을 활용한다. • 문학작품의 감상능력은 평가하지 않는다.
표현	글의 재료를 수집하여 개요를 구성하고 문단을 조직화하며, 고쳐 쓰기를 통해 글을 완성할 수 있는가?	• 맞춤법, 띄어쓰기 등 문법적 지식을 직접 묻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 어휘력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추론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 기호논리학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 논리학의 전문용어를 묻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 지나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비판	글에 들어 있는 논증 구조를 분석하여 타당성, 일관성, 관련성 등의 기준에 의해 논증의 설득력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추론능력 이외의 모든 논리적 사고능력은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3. 내용영역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전 분야에서 출제된다. 또한 고전뿐만 아니라 서신, 설명, 홍보, 연설, 대화 등 실용적인 글도 지문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시 등과 같은 문학지문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출제유형

ㄱ. 이해능력: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

주어진 글에서 나타난 정보에 대한 정확한 포착과 이를 토대로 한 주제, 논점과 논지 등을 묻는 유형이 출제된다. 또한 글에 나타난 정보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도 출제된다.

ㄴ. 표현능력: 글을 쓰는 기본 능력을 평가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주장과 논거를 만드는 유형과 개요 구상, 문단 배열 등과 같은 글

의 구성력, 완성된 글에 대한 고쳐쓰기 등의 평가 유형이 출제된다.

ㄷ. 추론능력: 주어진 글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을 평가
연역논증과 귀납논증에 필요한 요소를 묻는 유형, 논증에 있어서 전제와 결론의 추론, 전제
들 간의 비교 유형이 출제된다.

ㄹ. 논리적 비판능력: 글에 담긴 논증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
지문의 논리적 관계와 구조를 묻는 문제, 논증의 반론과 비판, 논증의 강화와 약화, 논증의
구조와 관계, 오류, 연역추리에 근거한 논리게임 등이 출제된다.

5. 최근 출제된 기출문제 분석

이해 영역에서는 약 30% 이상이 출제되고 있으며, 표현 영역도 10%로 출제되고 있다. 추
론과 비판 영역은 해가 갈수록 높은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역추리나 논
리게임 뿐 아니라, 특히 비판적 사고를 측정하는 영역 즉, 언어와 논리가 혼합된 영역이 점
차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해와 표현 영역의 난이도가 줄어들어 이러한 언어 영역 보다는 추론이나 비판과 같은 논
리 분야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의해 고득점이 결정되고 있다. 또한 과학 지문의 꾸준한 출
제도 주의할 부분이다.

6. 학습방법

언어논리 영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언어적 이해 능력이 요구된다. 즉 주어진 글에 대한 정확
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추론과 논증의 개념과 이해가 필요하며, 논증의 반론과
평가도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논리게임과 같은 기능적인 능력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범주적 이해와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1) 논리학 지식에 기반한 문제 해결

: 이는 일명 추리적 사고(reasoning)를 측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다. 이 영역에 포함되
는 문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연역(명제 술어논리)추리: 대당관계의 파악, 타당한 추리 파악, 추론규칙의 사용
- 귀납추리: 추론형식, 귀납적 사고 유형 구분
- 논증의 반론 및 비판: 쟁점 파악, 논증의 강화와 약화, 판단 및 평가
- 논리게임: 배열하기, 연결하기, 속성매치시키기, 진실 거짓 게임, 수학적 퍼즐

이 영역은 기능적 훈련에 의한 정확한 과정의 이해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논리학적 지식이
있을 때에 명확한 해결이 가능하다.

2) 지문 분석에 초점을 둔 문제 해결

: 지문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며 논증적(argumentation) 사고를 의미한다. 결국 추리적 사고의 표현인 논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논리학적 지식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영역에 포함되는 문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논증의 분석과 재구성: 내용 일치 및 부합 여부, 주장과 근거, 전제와 결론 파악, 가정이나 원리 파악, 생략된 전제의 파악, 논증의 구조 파악
- 비판 및 반론: 쟁점 파악, 비판의 근거, 반론 제기, 해결방안 제시
- 논증의 판단 및 평가: 논증의 오류 파악, 귀납논증의 강화와 약화, 논증의 판단

이 영역은 지문의 분석 방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지문의 성격과 질문의 구체적 사항에 따라 그 방법을 달라져야 한다. 즉 거시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미시적 차원에서의 정보파악이 문제와 지문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판단의 설정이 가치와 사실 등 어느 면에 집중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분석되어야 한다.